

농어촌公 성주지사, 주거개선사업 ‘사회 가치 실현’

성낙성 기자 jebo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4.09.12 20:10

농축산부 · 다솜복지복지재단 협력
지역내 취약층 안전 · 복지향상 기여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12일 경북도 성주군 성주읍에 위치한 농가에 방문해 '2024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재단법인 다솜복지재단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지붕이 빗물이 새 이불이 젖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처마밑 물받이가 없어 우천 시에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나 올해는 장마와 태풍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해당 가구의 주택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성주지사 직원 15여 명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지붕 공사와 처마밑 물받이 설치를 위해 깨진 기와장들을 옮기며 주택 내외부 정비에 힘썼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지사 직원들과 힘을 합쳐 더 나은 농촌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의미가 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집 고쳐주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과 기부금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지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